

人稱接尾辭의 形態 및 意味別 分類에 依해 形態別 分布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辭典에는 接尾辭로서의 機能이 認定되어 있지 않지만, 그 用法이나 意味別 機能으로 보아 人稱接尾辭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하고 있는 員, 手, 夫, 師, 漢, 主, 才, 匠을 人稱接尾辭로 간주하여 다루고자 한다.

意味面에서는 人稱接尾辭들의 意味別 共通性·類似性에 의한 分布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人稱接尾辭와의 結合에 의한 것

接尾辭(suffix)는, 語彙의 機能없이 文法的인 機能만을 表示하는 屈折接尾辭(inflexional-suffix)와 語彙의 機能을 위주로 하여 派生語를 生成할 수 있는 派生接尾辭(derivational-suffix)로 區分된다. 屈折接尾辭는 一般的으로 助詞, 語尾, 補助語幹을 指稱하고, 派生接尾辭는 先行하는 語基(base), 혹은 語根(root)에 새로운 意味를 附加하는 것을 가리킨다. 人稱接尾辭는 派生接尾辭의 범주에 있다.

人稱接尾辭는 “어떤 語根이나 品詞의 뒤에 쓰이어 人稱名詞를 派生하고, 그 名詞가 指示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즉 人間의 性質, 職業, 貫習, 性向, 行動, 姿態 등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붙어 쓰이어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接尾辭이나 대개의 경우 이 人稱接尾辭는 사람을 나타냄과 아울러 親近性 愛稱의 등의 意味를 附加한다.”

人稱接尾辭는 依存語素(bound-form)로서 그 意味의 獨立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은 接尾辭가 本來 文法的인 기능보다도 새로운 意味를 더해 주는 語彙的인 機能이 주된 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本章에서는 다음의<表1>에 의해 人稱接尾辭의 形態를 살펴보고 事例가 많은 순서로 意味를 考察하고 意味別 共通性·類似性에 의한 分布圖를 작성하여 意味機能을 살펴보고자 한다.

<表1>에 의해 나타난 人稱接尾辭의 그 事例의 빈도수에 따라 순서적으로 意味別 機能을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1> 人稱接尾辭의 形態 및 形態別 分布

총사례수 : 1,896.

인칭접미사	者	人	家	士	工	生	輩	民	徒	君	監	長	囚
사례	550	340	220	75	60	40	30	35	27	4	7	17	10
백분율 (%)	29	17.9	11.6	3.95	3.16	2.1	1.58	1.84	1.42	0.21	0.36	0.89	0.52
인칭접미사	農	狂	客	商	仙	員	手	夫	漢	師	才	主	匠
사례	5	5	74	50	3	87	50	40	16	62	26	40	23
백분율 (%)	0.26	0.26	3.9	2.63	0.15	4.58	2.63	2.1	0.84	3.27	1.37	2.1	1.21

1) 者

辭典을 보면, “첫째, 어떤 名詞 아래에 붙어, 어느 方面의 일이나 知識에 능통하여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學者, 記者, 著者, 鑑定者, 翻譯者, 教育者, 速記者, 技術者…).

둘째, 무엇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流浪者, 侵略者, 蒐集者, 鑑賞者, 乞食者 仕, 購讀者, 繼走者, 繼承者……)를 나타낸다”고 明記되어 있다. 이런 辭典의 意味 외에도 어떠한 狀態에 있는 사람, 즉 어떠한 狀態에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病者, 收監者, 受講者, 不具者, 生存者, 强者, 資格者, 契約者, 高齡者……)

‘~者’는 漢字語 人稱接尾辭 중에서 그 쓰임이 가장 풍부하고 어떤 名詞에든지 쉽게 結合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者’는 生産性이 가장 풍부한 接尾辭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人

‘~人’은 어떤 名詞 아래 쓰이어 그러한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犯人, 佳人, 保證人, 借用人, 市人, 小人, 鄙人, 巨人, 細人, 所持人, 俗人, 參加人 自然人, 大人, 老人……)

以上の 말들은 行爲者, 狀態者를 나타내고 있다. ‘~人’은 위의 辭典的 意味 외에도 細分하여 그 意味를 살펴보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事例: 詩人, 藝術人, 音樂人, 紹介人, 虞人, 運送人, 演戲人, 法曹人, 飼養人, 陶人, 牧人, 過人…)

3) 家

辭典을 보면 다른 人稱接尾辭와는 달리 그 意味가 비교적 細分하게 定義되어 있다.

‘~家’는 몇몇 漢字語 아래에 붙어, 첫째 그런 方面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을 나타낸다. (事例: 作家, 小說家, 政治家, 蒐集家, 著述家, 作曲家, 脚本家, 觀相家, 牧畜家, 演奏家…)

둘째, 어떤 일에 능하거나 또는 지식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뜻을 나타낸다. (事例: 外交家, 辯論家, 文章家, 傳門家, 文學家…)

셋째, 그 명사가 뜻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임을 나타낸다. (事例: 篤志家, 工藝家, 愛酒家, 經濟家, 權力家…)

넷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藏書家, 資本家…)

‘~家’는 一般的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一定한 성취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을 나타낸다.

4) 員

‘~員’은 어떤 名詞의 아래 붙이어 쓰일 때, 즉 어떤 漢字語에 後接해서 쓰일 때에는, 첫째, 그러한 일에 관계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潛水員, 日直員, 運動員, 外販員, 案內員, 乘務員, 補助員, 隨行員, 監視員, 職員, 教員…)

둘째,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 즉 구성원을 나타낸다. (事例: 議員, 委員, 會員, 組合員, 社員, 契員, 雇員, 課員, 部員, 構成員, 團員, 隊員…)

以上에서와 같이, 員은 辭典에는 人稱接尾辭로서의 그 機能이 認定되지 않고 있으나 用法으로나 그 意味機能으로 보아서 ‘어떤 名詞의 아래 쓰이어 그 일에 관계하는 또는 어떤 단체의 成員을 나타내는 사람을 뜻하는 接尾辭’로 봄이 타당하다.

5) 士

‘~士’는 名詞 다음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人稱接尾辭이다. (事例: 運轉士, 樂士, 講士, 辯士, 機關士, 書士, 按摩士, 辯護士, 稅務士…)

위와 같은 辭典的 意味는 職業을 나타내는, 즉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士’는 ‘어떠한 일에 뛰어난, 능란한 사람 또는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事例: 義士, 居士, 信士, 傑士, 勤士, 高士, 博士, 韻士, 碩士, 吉士, 良士, 烈士, 人士…)

6) 客

“어떤 名詞 뒤에 붙어서 ‘어떤 사람’ 즉, 行爲者 狀態者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事例: 不請客, 觀覽客, 苦客, 顧客, 過客, 歸省客, 賞春客, 商客, 傍聽客, 訪問客, 遊覽客, 醉客, 旅客…)

위와같은 辭典的 意味를 細分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떤 일에 능숙한, 전문적인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律客, 妖客, 術客, 詞客, 賦客, 論客, 歌客, 劍客…)

둘째,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歌客, 妖術客…)

‘~客’은 本來의 意味를 가지고, 그 意味의 變化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쓰이는 대표적인 人稱接尾辭이다.

7) 師

‘~師’는 辭典에 接尾辭로서 취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師의 用法이나 意味로 보아서 人稱接尾辭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 같아 本稿에서는 人稱接尾辭로 그 機能을 認定하여 살펴본다.

‘~師’는 ‘어떤 漢字語에 後接하여,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技師 數師, 醫師, 牧師, 講師, 曲藝師, 論師, 美容師, 扮裝師, 碩師, 藥師, 料理師…)

一般的으로 ‘~師’는 專門家(expert)를 나타내고 때때로 어떤 모범적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8) 工

‘~工’은 名詞아래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즉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제로 하는 명사아래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陶工, 石工, 旋盤工, 塗裝工, 無線工, 紡織工, 修繕工, 文選工, 保線工, 染色工, 植字工…)

事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은 肉體勞動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人稱接尾辭이다.

‘~工’은 위의 辭典의 意味 以外에도 종종 ‘어떠한 일에 뛰어난, 이름난 사람’이란 意味로도 쓰인다. (事例: 名工, 上工, 畫工, 良工…)

9) 手

‘~手’는 辭典에 接尾辭로서의 機能이 認定되고 있지 않지만, 手가 어떤 명사에 後接해서 쓰일 때에는 주로 機能者, 職務者를 나타낸다. 즉 手는 어떤 명사에 後接하여 쓰이면서 接尾辭의 機能을 하고 있다. 人稱接尾辭로서의 ‘~手’는

첫째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旗手, 木手, 歌手, 燈臺手, 投手, 助手, 舞蹈手, 消防手, 信話手…)

둘째, 어떤 일에 아주 뛰어난, 능숙한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選手, 高手, 上手, 弓手, 老手, 能手, 書手, 善手…)

이와같이 手는 그 用法이나 意味機能으로 볼 때 人稱接尾辭임이 分明하다.

10) 商

‘~商’은 어떤 명사의 뒤에 쓰이어 ‘장수’의 意味만을 가질 뿐 그 외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古物商, 中介商, 行商, 雜商, 鉅商, 布木商……

‘~商’은 人間들의 經濟的인 욕구에 의해 ‘商人’이란 말에서 ‘~人’이 생략되어 ‘어떤 장수’를 나타낼 때 아무런 어려움없이 意味를 전달할 수 있음으로 인해 接尾辭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같은 것은 現在의 言語生活에 있어서 意味의 혼란이 생길 경우 ‘商’다음에 ‘~人’을 붙여 써서 확실하게 意味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11) 夫

‘~夫’는 一般的으로 勞役に 관련된 漢字語와 結合하여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며—例: 工夫, 鑛夫, 農夫, 漁夫, 潛水夫, 雜役夫, 馬夫…—勞役과 관계없는 漢字語와 결합할 때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낸다.(事例: 姦夫, 狂夫, 脚夫, 烈夫, 大才夫…)

이상에서와 같이 ‘~夫’는 어떤 명사아래에 붙어 쓰이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人稱接尾辭로 간주해도 무방하며 男性 人稱接尾辭³⁾로 가장 生産的인 語形이다.

3) 金宗澤, 「國語人稱接尾辭의 意味機能」, 大邱敎大 國語敎育論志 6. 1979.

12) 生

사전에는 「姓밑에 붙여 써서 젊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名詞의 다음에 붙어서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事例：學生，講習生，見習生，門下生，貸費生，書生，受講生，研究生…)

이와같은 경우에는 「미숙하다」는 의미로써, 어떤 일에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生’은 어떤 기능을 가진, 專門的인 기능을 가지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事例：先生，藥局生，醫生…)

近者에 와서는 「先生」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보다는 尊稱의 意味로 이름아래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生’은 이외에도 어떤 狀態者를 나타내기도 하지만(事例：同期生，落第生，同門生，院生…) 一般的으로는 어떤 일에 미숙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13) 主

主가 붙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主人의 뜻으로 ‘~人’이 생략된 語形으로 보이지만 ‘~人’없이도 충분히 사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辭典에는 접미사로서의 기능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쓰임이나 意味로 볼 때 ‘~主’가 人稱接尾辭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主’는 어떤 명사아래에 쓰이어 主體者，所有者를 나타낸다. (事例：家口主，舉主，契主，雇用主，校主，救世主，企業主，農場主，物主，事業主，所有主…)

14) 民

辭典을 보면, “사람, 공민, 인민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明記되어 있을 뿐 意味別로 細分되어 說明하지 않고 있다. ‘~民’을 意味別로 細分하여 그 기능을

考察해 보면, 첫째, “어떠한 사람” 즉 行爲者, 狀態者를 나타낸다. (事例: 怪民, 國民, 難民, 萬民, 庶民, 先民, 選民, 鮮民, 細窮民, 小市民, 原住民, 遊民, 佚民, 逸民…)

둘째,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사례: 農民, 漁民, 野民, 遊牧民…)

주로 肉體勞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행정구역의 한 단위에 後接해 쓰일 때에는, 그 곳에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道民, 市民, 郡民, 邑民, 里民, 部落民, 區民, 洞民…)

15) 輩

‘~輩’는 本來의 意味대로 ‘무리’를 나타내는 것이 一般的이다. 辭典에도 名詞의 語根에 붙어 ‘무리’를 나타내는 말 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事例: 同輩, 等輩, 末輩, 無賴輩, 浮浪輩, 俗學輩, 時輩, 狹雜輩, 謀利輩, 徒輩, …)

좀 더 意味를 細分하면 ‘어떤 사람, 行爲者, 狀態者’를 나타낸다. (事例: 輕輩, 先輩, 後輩, 賭輩, 傍輩, 凡輩, 少輩, 若輩, 年輩, …)

16) 徒

‘~徒’는 接尾辭 자체에 어떤 意味나 감정이 없이 ‘사람’, ‘무리’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진다. 사전에는 ‘사람, 무리’를 나타내는 말로 定義되어 있다.

‘~徒’는 結合하는 漢字語에 따라 그 말이 뜻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 무리’를 나타낸다. (사례: 教徒, 信徒, 博徒, 叛徒, 逆徒, 囚徒, 惡徒, 學徒, 生徒, 役徒…)

17) 才

‘~才’는 語義 그대로 「재주」의 뜻으로서 ‘才人’에서 ‘~人’이 생략된 語形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人’이 없이도 充分하게 ‘사람’을 나타내며 人稱接尾辭로서의 機能을 하고 있다.

‘~才’는 語彙的 意味를 그대로 지니면서 「어떤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러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鬼才, 奇才, 器才, 鈍才, 秀才, 英才, 小才, 穎才, 人才…)

이와 같이 ‘~才’는 그 쓰임이나 의미를 볼 때 人稱接尾辭로 다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18) 匠

지금은 별로 쓰이지는 않지만 勞役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車匠, 家具匠, 工匠, 銅匠, 石匠, 繕匠, 小林匠…)

어떤 일에 뛰어난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巨匠, 學匠, 明匠, 樂匠, 名匠…)

‘~匠’ 역시 ‘匠人’에서 ‘~人’이 생략된 어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匠’만으로도 충실하게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용법, 의미별 기능으로 보아서 ‘어떠한 명사 뒤에 쓰이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接尾辭로 보아도 무방하다.

19) 長

‘~長’은 일부 명사 다음에 쓰이어 ‘책임자’, ‘우두머리’를 나타낸다. (사례: 社長, 會長, 隊長, 班長, 統長, 級長, 臺長, 事務長, 般長, 所長, 組長…)

一般的으로 ‘~長’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여 ‘책임자’, ‘우두머리’를 나타내지만 때때로 ‘손윗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례: 上長, 年尊長…)

20) 漢

辭典에는 接尾辭로서의 기능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漢’은 어떤 말 다음에 쓰일 때, 경계와 중요감을 내재하여, ‘사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다. (사례: 惡漢, 痴漢, 無賴漢, 橫暴漢, 怪漢, 癩漢…)

때때로 '~漢'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례: 門外漢, 老漢, 農夫漢, 鈍漢, 沒守漢, 監漢, 硬骨漢…)

따라서 '~漢'은 「어떤 말 다음에 쓰여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며, 경계감과 증오감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접미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 囚

'~囚'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여, 「일정한 명사 아래 붙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어둠함을 나타낸다」는 기능만을 하고 있는 접미사이다. (사례: 罪囚, 未決囚, 服役囚, 死刑囚, 時囚, 女囚…)

22) 監

'~監'은 「감독의 구실을 맡아하는 사람」만을 나타낼 뿐 그 외의 의미로 쓰이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어떤 말 다음에 쓰이어 그러한 일의 감독의 구실을 하는 사람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事例: 都監, 米監, 舍監, 校監, 敎育監…)

23) 農

'~農'은 일부 명사의 다음에 쓰여 '농민'의 뜻을 나타내는 接尾辭이다. '~農'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民'이 생략된 어형으로 보이고, 의미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의미의 혼란이 올 때- '民'을 쓰는 것으로 볼 때 '農民'의 '~民'이 생략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農'만으로도 '사람'이란 意味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農'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단순하여 '어떠한 농민 또는 그런 농민'만을 나타낸다. (事例: 富農, 貧農, 上農, 自作農…)

24) 狂

辭典을 보면 「어떤 名詞의 다음에 쓰이어, 그 名詞가 뜻하는 대상에 열광적인 성벽 또는 그런 사람을 나타낸다」고 明記되어 있다.

‘~狂’은 語義 그대로 「미친 사람」을 나타내지만, 話者나 聽者의 感情에 따라 “미친”, 또는 “열광적인” 意味로 나타난다. 따라서 ‘~狂’은 어떤 명사의 다음에 쓰일 때 ‘미친’ 또는 ‘열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나타낸다. (事例: 殺人狂, 書籍狂, 蒐集狂, 音樂狂, 書狂…)

25) 君

辭典에는 「친구나 손 아랫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그 姓이나 이름아래에 붙이어 쓰이는 말」이라고 定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도 하고, (사례: 良君, 夫君, 父君…) 어떤 명사 아래에 쓰일 때 그 명사가 뜻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事例: 萬石君, 千石君…)

일반적으로 ‘~君’이 쓰이는 경우는, 아랫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쓰인다.

26) 仙

‘仙’은 사람의 성명에 붙어 높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나타낸다.

詩仙, 神仙, 酒仙

물론 위와 같은 말 속에서 높임의 의미가 들어 있지만, 보통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意味가 더 강한 것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人稱接尾辭의 形態와 意味를 分類하여 考察해 보았다. 이제 意味

別 分類에 의해 나타난 各 人稱接尾辭들 사이의 意味別 類似性이나 共通性을 圖表로 作成하여 考察해 보겠다.

〈表2〉 人稱接尾辭의 意味別 類似性, 共通性에 의한 分類

•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

① 專門職 { 精神勞動; 者, 人, 家, 師, 客, 生, 士
 { 肉體勞動; 者, 人, 家, 師, 客, 士

② 日常職 { 精神勞動; 者, 人, 家, 士, 生, 客, 員, 監

(단순노동) { 肉體勞動 { 傳門職; 者, 人, 家, 士, 工, 民, 監, 手, 夫, 匠
 { 日常職(단순노동); 工, 夫, 匠, 商, 客, 員, 農, 監

• 어떤 일에 뛰어나거나 능통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 者, 人, 家, 士, 工, 客, 仙, 手, 師, 丈, 匠

• 所有者를 나타내는 말; 主, 家, 才

• 尊稱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말; 君, 長, 仙.

• 무리를 나타내는 말; 徒, 輩

• 男子를 나타내는 말; 漢, 夫

• 名詞가 가진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 家, 徒, 君

• 경계감, 증오감, 불쾌감을 나타내는 말; 狂, 囚, 輩, 漢, 徒

앞의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稱接尾辭들의 意味別 類似性·共通성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意味別 分類를 통해서 볼 때,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거의 모든 人稱接尾辭가 그 機能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生’이 職業을 나타내는 경우는 專門職이나 日常職에 관계없이 精神勞動과 관련된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과, ‘~工’ ‘~夫’ ‘~匠’ 등이 勞役을 전제로 하여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肉體勞動과 관련된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機能職을 나타낼 때는 주로 ‘~工’ ‘~手’ ‘~師’ ‘~士’ 등이 쓰인다는 사실과 專門職을 나타내는 경우, 즉 전문적인 지식이 要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로 ‘~家’가 쓰인다는 사실이다.

尊敬·尊稱의 意味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은 人稱接尾辭가 쓰이기는 하지만 주로 ‘~君’ ‘~長’ ‘~仙’이 쓰이며, 所有者를 나타내는 경우는 ‘~主’가 가장

生産性이 높은 接尾辭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의 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人稱接尾辭가 行爲者, 狀態者를 나타내고 있다.

Ⅲ. 非人稱接尾辭와의 結合에 의한 것

非人稱接尾辭와의 結合에 의해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은 派生法에 의한 것을 말한다.

派生語 形成은, 어떤 語彙로 묘사할 수 없는 잘 만들어진 개념이 존재할 때 의미차이—기존어의 개념과 새 개념 사이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의미 차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의미 차이 가설과, 話者가 최소의 표면적 복잡성으로 최소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최소·최대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⁴⁾

파생은 자유형태소에 접사들을 첨가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것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 한다. 국어의 파생 접미사는 그 수효도 상당히 많고, 하는 일도 語基의 意味 뿐만 아니라 品詞 等の 文法的 性질도 바꾸는 등 상당히 복잡하다. 本章에서는 語基의 意味를 變化시켜 ‘사람’을 나타내는 漢字語 接尾辭만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가, 나, 다 順에 의해서 다름)

1) 口

‘口’는 어떤 명사의 뒤에 쓰여 ‘사람이 드나드는 곳’, ‘작은 구멍’, ‘구멍이 나 있는 곳’을 나타내는 接尾辭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漢字語와 연결되어 쓰일 때, ‘~口’는 ‘어떤 단체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어떠한 사람’이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킨다.

寄口, 單食口, 家口, 食口

4) 金圭哲, 「단어형성 규칙의 정밀화」, 언어 제6권 제2호, 한국어언어학회, 1981.

2) 領

‘~領’은 國名뒤에 붙어서 그 나라 영토임을 나타내는 接尾語이다. 그러나 “頭領, 首領, 統領” 등에서 ‘~領’은 「우두머리」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켜 쓰이고 있다.

3) 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유파가 독특하게 가지는 방식, 경향을 나타내는 接尾辭”이다. 輩流, 亞流 등과 같은 경우 ‘~流’는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켜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4) 事

辭典을 보면, 「일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定義되어 있다. ‘~事’역시 몇몇 漢字語와 연결되어 쓰일 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킨다. (事例: 檢事, 判事, 主事, 知事, 幹事, 監事, 服事, 領事, 理事...). 또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事例: 判事, 檢事, 領事...)

5) 世

“지질 시대 구분의 한 단위, 紀를 細分化한 것 父子相傳하는 代나 同系, 同名 王朝의 임금 차례를 나타내는 접미사”이지만 “뛰어난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이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키기도 한다.

名世, 命世

6) 種

‘~種’은 다른 말 다음에 붙어 종류를 나타내는 接尾辭이다. 몇몇 漢字語와의 연결에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毒種, 亡種, 別種, 陽種

7) 下

‘~下’는 일부 漢字로 된 명사 아래 쓰이어 ‘~밑에서’, ‘~아래서’의 뜻으로 그 명사가 조건이나 상태가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派生에 의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위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람’을 나타낸다. ‘~下’가 쓰이는 경우 ‘~者’가 생략된 語形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下’가 접미사로 그 기능이 인정되어 있고 파생에 의해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下’가 독자적으로 쓰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配下, 年下, 部下, 率下, 侍下

8) 學

辭典을 보면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서 학문의 한 부분을 일컫는 접미사」라고 定義되어 있다.

그러나 ‘宿學, 碩學, 同學’ 등과 같은 말에서 ‘~學’은 學問과 연관되어 ‘뛰어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란 새로운 意味를 派生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下’의 경우와 같이 ‘~者’가 생략된 語形으로 보아진다. 그렇지만 ‘學’이 接尾辭로서의 그 기능이 認定되고 있어서 ‘宿學, 碩學, 同學’ 등의 경우에는 派生에 의해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以外에도 接尾辭와의 結合에 의해 새로운 意味를 派生시키는 非人稱漢字語 接尾辭로는 ‘~風’ ‘~機’ ‘~節’ ‘~席’ ‘~相’ ‘~年’ 등이 있다.⁵⁾

5) ~風→名風, ~機→對機, ~節→使節, ~席→首席, 丈席, ~相→首相, 外相.
~年→成年, 未成年.

IV. 맺 음 말

‘사람’을 뜻하는 漢字語로는 人稱接尾辭 ‘~者’ ‘~人’ ‘~家’ ‘~士’ ‘~工’ ‘~生’ ‘~輩’ ‘~民’ ‘~徒’ ‘~君’ ‘~監’ ‘~長’ ‘~囚’ ‘~農’ ‘~狂’ ‘~仙’ ‘~客’ ‘~商’ 등에 의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口’ ‘~事’ ‘~世’ ‘~學’ ‘~領’ ‘~種’ ‘~流’ ‘~下’ 등과 같은 接尾辭들이 派生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또한 辭典에는 接尾辭로서의 機能이 認定되지 않고 있지만 그 用法이나 意味機能으로 볼 때 人稱接尾辭로 다루어도 무방한 ‘~員’ ‘~手’ ‘~夫’ ‘~師’ ‘~主’ ‘~才’ ‘~匠’ ‘~漢’ 등이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漢字語素나 接尾辭들은 이 외로 많이 나타난다. 本稿에서는 그 事例가 많이 나타나는 漢字語素만을 다루었다.

‘사람’을 나타내는 人稱接尾辭의 意味는,

첫째, 어떤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

둘째, 어떤 일에 능통한, 뛰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말.

셋째, 所有者를 나타내는 말.

네째, 尊稱의 意味를 나타내는 말.

다섯째, 무리를 나타내는 말.

여섯째, 名詞가 가진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

일곱째, 男子를 나타내는 말.

여덟째, 敬感, 尊重感, 佩服感을 나타내는 말.

등으로 類似性·共通性으로 意味를 分類하여 묶을 수 있다.

人稱接尾辭는 단순히 人稱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好, 惡의 感情, 尊卑를 나타내고 있다. 本稿에서는 國어 漢字語 人稱接尾辭를 중심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 대하여 形態 및 意味別 分類를 통해 意味機能, 意味別 類似性·共通性에 대하여 考察해 보았다.

參 考 文 獻

- 대국어사전—이승녕, 남광우, 이응백, 최학근, 지춘수 감수, 현문사, 1976년.
- 金宗澤, 「國語人稱接尾辭의 意味機能」, 大邱教大 國語教育論志 6, 1979년.
- 金圭哲, 「漢字語 單語形成에 關한 研究 —固有語와 比較하여—」, 國語研究 第41號, 國語研究會, 1980.
- 金圭哲, 「單語形成 規則의 정밀화」, 言語 第六卷 第二號, 韓國言語學會, 1981년.
- 이익섭, 「國語 造語論의 몇 問題」, 東洋學 5, 1975년.
- 金宗澤, 「復合漢字語의 語素配合構造」, 語文學 27號, 1972년.